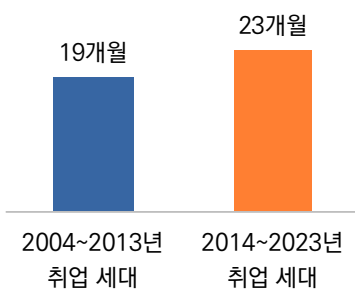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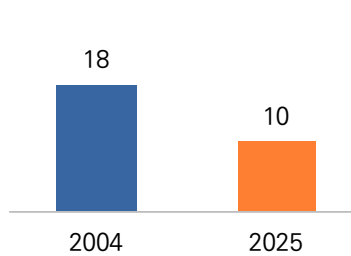
[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] 청년층, 첫 취업까지 2년 가까이 걸린다

- 한국 내 청년 취업난은 현재도 진행 중인 문제이다. 최근 '30대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'*는 언론 기사도 눈에 띈다.
-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'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'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.
- 첫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을 보면 '2004~2013년 취업 세대'는 첫 취업까지 평균 19개월이 걸렸던 반면 '2014~2023년 취업 세대'는 23개월(2년 가까이)로 늘어났으며,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비율도 2004년 18%에서 2025년 10%로 하락했다.

[그림] 첫 취업까지 소요기간 (15~29세 청년, 평균)



[그림]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비율 (15~29세 청년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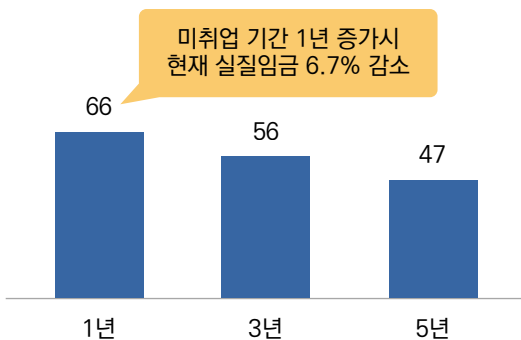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한국은행,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, 2026.01.19.

*조선일보, 지난달 실업자 121만명 역대 최대...청년 쉬었음 인구는 22년만에 최대, 2026.01.14. 기사 참조 (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economy_general/2026/01/14/3MOKOBBHNZEU3AWM4H6HCTOIII/)

청년 취업 늦어질수록 상용직 근무 어려워진다!

- 청년층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생애 전체적으로도 고용성이 악화되고 소득이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, 미취업 기간이 1년일 경우에는 5년 후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이 66%였으나, 3년으로 늘어나면서 56%로 낮아지고, 5년이면 절반 아래(47%)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즉 청년 취업이 늦어질수록 상용직 근무 기회가 줄어들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
- 소득 측면에서도 미취업 기간 1년 증가 시 실질임금은 6.7%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.

[그림] 청년층 미취업 기간별 5년 후 '상용직' 근무 확률 (%)



※출처 : 한국은행,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, 2026.01.19.